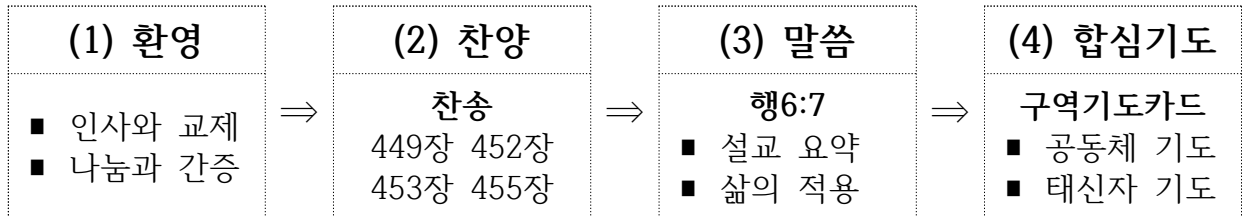


## 2월 구역모임

#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사도행전 6장 7절)

### ♥ 진행순서 ♥



### ☺ 1. 환영

◎ 인사와 교제

◎ 나눔과 간증 :

☞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제목을 서로 나눕시다.

### ☺ 2. 찬양

◎ 예수 따라가며 (찬449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314장)

◎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453장)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455장)

##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 511)

E. P. Prentiss, 1856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 22:37)

MORE LOVE TO THEE: IRREG.  
W. H. Doane, 1870

모듬으로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 이 전엔 세상나 기뻐서  
3. 이 세상 떠날때 찬양하고

옆드려 비는말 들으소서  
지금내 기쁨은 오직 예수  
숨길 때 하는말 이 것 일 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 멘

### 3. 말씀

####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행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 설교요약 (2019년 1월 1일 “새해첫날예배”)

#####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리, 혹은 제자 이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같았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처럼 무리의 그룹과 제자의 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안에서도 거짓 제자와 참 제자의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로부터 이천년이 지난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의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제자라면 어떤 종류의 제자인지를 살피지도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회중 가운데 무리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신앙의 패턴에서 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언젠가 시험을 당해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에서 멀어지고, 삶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지금 무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자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월절 가까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다니다가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이 지쳐, 피곤해 있는 것을 보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다음날 당신이 즐겨 가셨던 가버나움으로 가니, 거기에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떡을 먹고 배부르니 앞으로도 그 의식주를 기대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속을 꿰뚫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 상반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욕구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에, 그토록 가이사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알고는 그를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크게 망설이지 않고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예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더 조롱하고 침 뱉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무리”입니다.

###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도 처음에는 이 무리들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만, 무리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를 따르면서 욕구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라는 육체적 욕구가 정리되고, 영적인 욕구 즉 영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에 더 목말라합니다. 예수님은 떡 때문에 쫓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 영원히 있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직업을 갖고 성실히 일하만, 동기가 다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의 배반자는 무리 중에 있지 않고 제자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요, 그분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먹는 떡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길게 설교를 하시니, 제자 중에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6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뿐 아니라 제자인데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식으로 받으려고 할 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달리 의식주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라 진리 때문에 따르지만 예수가 진리요,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상대화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66절). 처음에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짓 제자들은 떠나가고, 열 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 【참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 주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 옆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떠날 용기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떠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욱 소중한 보물, 즉 영생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는 메시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입니다. 예수만이 왕이요, 예수만이 주님인 자가 참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는 예수만이 절대요,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머리로 알고 그 뒤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믿고 그 뒤에 머리로 알게 됩니다. 신학자 본회퍼가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게 된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성인 중에 거짓제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의 가르침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머리와 이성을 넘어서야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야 참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면, 왕이신 예수 앞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상대화”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비로소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도 남아있고, 한 번씩 욕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에 절대로 오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상대화하기 때문에 성찰하고, 회개하고, 참회하여 돌이킬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신앙의 동기가 별

받을까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제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요하고 놀라운지를 알기에 그 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참 제자가 많은 교회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행 6:7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의 모습입니다. 새성전 시대를 맞아 옛 신앙의 티를 벗고,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참 제자로 거듭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1)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따르는 사람이 무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두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 했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무리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둘이 섞여있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를 진솔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2)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 혹은 제자에서 참제자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내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정직하게 나눠보시고,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이 갖습니다.

## ☪ 4. 합심기도

- ◎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태신자를 위한 기도

- ☞ 배부된 『구역기도카드』를 활용하여 합심기도 합시다!
-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